

올 여름 휴가는 즐길거리 넘치는 농촌으로!

농식품부, 도농교류의 날 기념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 펼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7회 도농교류의 날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확산을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도농교류의 날 7월 7일을 맞아 제정취지에 대한 홍보를 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 여름휴가철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국회의원, 관광공사 관계자, 경제단체 관계자, 농촌체험휴양마을, 여행사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도농교류의

날 개막식을 진행했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총 11점의 포상이 수여되고 농촌 여름휴가 캠페인 선포식과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대구한방병원 백정환 병원장은 한의사 시절인 2001년부터 농촌지역 대상 의료봉사와 일손돕기, 병원 내 농산물직거래 장터 운영, 전직원의 도농교류 동참유도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또한, 행사장에는 정책홍보관, 농촌체험관, 여행상품관 등 농촌관광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테마부스가 운영됐다.

농촌관광 정책홍보관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고, 농촌 체험관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실제 운영 중인 다양한 농촌체험을 했다.

여행상품관에서는 농촌여행상품을 운영 중인 여행사들이 참가하여 도시민들에게 농촌여행 코스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상품도 판매했다.

아울러, 행사장에는 도시민 대상 참여 유도를 위한 농촌여행 관련이색 이벤트와 부대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물총으로 허수아비 맞추기, 찾았다! 우리 농산물, 작은 텃밭 놀이" 등을 통해 재미와 함께 푸짐한 경품을 제공했으며, 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뽕따기를 현장에서 직접 튀겨 식혜와 같이 제공해 방문객들을 즐겁게 했다.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시고 주변의 관광지도 둘러보시면 농촌이 지닌 숨은 매력에 빠지실 거라 확신한다"며, 이번 여름 휴가는 북적거리는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다양한 맛과 멋을 경험할 하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 웰촌(www.welt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촌여름휴가캠페인의 일환으로 '물놀이와 함께하여 더 재밌는 농촌여행' 7곳을 구성, 여름 휴가철 온가족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농촌여행지 정보를 제공하여 여행객들이 농촌여행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신재생에너지 눈높이 체험활동 '인기'

한전 익산지사, 참여여중 대상 Junior 전기교실 열려

한국전력 익산지사(지사장 이진구, 노조위원장 김호기)는 지난 5일 익산시 합일초를 합일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Junior 전기교실'을 시행했다.

Junior 전기교실에서는 기본적인 전기 이론뿐만 아니라 전력의 생산과 소비, 스마트 그리드 및 전력 ICT 등 다양한 주제를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전기 지식에 대한 스피드 퀴즈를 전기 지식에 대한 스피드 퀴즈를 진행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설비, 배전설비, K-BEMS(한국전력 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전기차 충전소를 견학한 후, 과학 실험 키트를 사용하여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경주를 해보는 체험 활동도 병행했다.

또한, 김효선 사원은 "모든 과정을 끝까지 귀 기울이며 집중하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투고자 하는 뜻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진로체험지원 홈페이지(ggongil.go.kr)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소규모 가공창업농 역량 '업그레이드'

농진청, 9일 수요자 맞춤형 교육 진행... 농식품 위생안전 요구 맞춤형 식품가공 정보 제공

창업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1:1 컨설팅도 실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2019년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규 창업농업인과 각 지역 농식품 가공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은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중앙과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식

품가공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농업인에게 분야별 전문기술 교육은 물론 창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 사업참여 경영체의 매출액 증가율 27.8%다.

9일 대전무역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참석자들에게 소비자들의 농식품 위생안전 요구에 맞춘 식품가공과 상품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2020년부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 의무적용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식품위생에 대한 기준과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 농업인이 농산물 가공사업을 추진하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회계, 유통관리, 위생·품질,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와 1:1 컨설팅(현장상담)도 진행한다. 이 밖에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농진청 농촌지원과 이명숙 과장은 "소규모 창업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산물 가공창업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조달청, 오늘부터 1674억원 상당 입찰 집행

조달청은 오늘부터 12일까지 대전광역시 수오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등 총 59건, 1674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수요 '향산초중 교사신축공사' 등 집행건수의 약 83%(49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전체의 약 52%인 878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41건, 527억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 851억원(이 중 351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시 648억원, 전남도 459억원, 그 밖의 지역이 567억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 예정 공사 중 1건의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 64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028억원)와 수의계약(6억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LX,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구입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최창학)가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 5000만원 상당의 대회 입장권을 구입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최창학 LX사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5일 광주시청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 전달식'을 가졌다.

LX는, 구입한 입장권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체육 문화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전달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구현할 방침이다.

최창학 사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평형 200m 금메달 수상한 정다래 선수처럼, 수영선수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더 큰 비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 5000만원 상당의 대회 입장권을 구입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농식품부·aT, 말레이시아에 K-Fresh Zone 오픈

동남아 할랄시장의 중심지인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제 한국산 참외, 딸기, 껌 등 신선농산물을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상설판매점이 문을 열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와 유명관광지인 코타키나발루 등 총 6개의 최고급 유통체인 매장에서 한국산 신선농산물 20여 품목을 상설 판매하는 'K-Fresh Zone'을 오픈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할랄시장의 허브이자, 아세안국가 중 GDP가 3위로 높은 구매력을 가진 시장이다.

특히,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식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지난해 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29%나 상승했다. 또한, 한국산 참외가 달콤한 맛과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말레이시아 K-Fresh Zone은 지난 2017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태국, 홍콩에 이어 4번째로 문을 열었으며,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양파, 새싹인삼, 껌 등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각종 채소류와 과일류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